

보도시점 2026. 7. 10.(금) 09:00 배포 2026. 7. 9.(목)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 용수 공급계획 현장점검

- 기후부 제1차관, 전남광주특별시 소재 4개 댐·저수지의 용수공급 현장 점검
-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신속 조성을 위한 산업용수 65만톤/일 선제적 확보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0일 오전 금한승 제1차관이 전남 광주특별시에 소재한 나주호, 장흥댐, 보성강댐, 주암댐 현장을 방문하여 용수공급 현황 및 계획을 비롯해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한승 제1차관은 첫 일정으로 나주호에 방문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 현황과 농업용수 이용 현황 등을 보고받고, 영산강을 활용한 농업용수 대체 공급계획을 살펴본다. 정부는 향후 나주호를 활용한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나주호 수혜 농경지의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 없도록 영산강에 양수장과 관로를 신규 설치하는 등 대체 시설을 구축하고, 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금한승 제1차관은 장흥댐, 보성강댐, 주암댐을 차례로 방문하여 용수 공급 현황과 신규 반도체 산단 조성과의 연계한 용수 공급계획을 점검한다.

아울러 장흥댐 여유량 활용,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일부 전환을 통한 공업용수 공급, 주암댐의 미사용 물량 활용 등의 용수 공급계획도 들여다본다.

정부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용수 총 65만톤/일을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기반시설 확보에 있다”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일정.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82)
		담당자	사무관	황창호 (044-201-7685)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권민혁 (044-201-7111)



- (개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과 연계한 용수 공급계획 점검
- (일시/장소) '26.7.10(금), 09:10 ~ 13:45 / 전남광주특별시 일원
- (일정) 나주호 → 장흥댐 → 보성강댐 → 주암댐

시 간		세부 계획
【① 나주호】		
09:10~09:30	20'	나주호 현장점검
09:30~10:20	50'	이 동 (→ 장흥댐, 43km)
【② 장흥댐】		
10:20~10:40	20'	장흥댐 현장점검
10:40~11:15	35'	이 동 (→ 보성강댐, 34km)
【③ 보성강댐】		
11:15~11:35	20'	보성강댐 현장점검
11:35~12:25	50'	이 동 (→ 오찬장)
12:25~13:15	50'	오 찬
13:15~13:25	10'	이 동 (→ 주암댐)
【④ 주암댐】		
13:25~13:45	20'	주암댐 현장점검